

# 민주 '인적쇄신론' 확산... 이재명 대표 결단하나

## 더미래, 전면 당직 개편·혁신 요구 당내 공감 분위기...친명 일색 비판

더불어민주당내 비명계(비이재명)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인적쇄신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전면 인적쇄신을 이재명 대표에게 공식 요구하면서, 빠르게 분출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 체제를 인정해 주는 대신, 친명 중심인 당직을 전면 개편하라는 요구인데,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전면 인적쇄신이 '선출직 제외 임명직 인적 개편'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며 "전면 인적쇄신과 새로운 혁신의 시간을 가진다면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조금 더 역동적인 힘을 받기 위해 자주 수세로 물리는 듯한 당의 모습이 아니라 새 에너지도 들어가 일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무조건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식만으로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겠냐는 데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더미래' 소속 의원 28명은 전날 간담회를 열고, 2시간여 동안 자유 발언을 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기 위해 소통, 성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이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 대표의 결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미래는 초·재선 의원이 주축으로 의

원 50여명이 소속돼 있다. 비교적 개파색이 열은 것으로 평가되는 모임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그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인적쇄신론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어난 분위기다. 전면 인적쇄신과 당직 개편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은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지만,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당내 대체적 관측이다. 당 일각에선 이탈 말이나 4월 초에 일부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의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정무직이라고 하는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 등 자리가 유례없을 정도로 단일 색채"라며 친명계를 정조준했다.

조 의원은 "최고위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똑같다. 자기와 같은 생각, 방향을 바라보는 분들과 같이 일하고 거기서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선출된 최고위원은 어쩔 수 없지만 임명직, 지명직은 다 좀 개편하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 생활보조비 지급한다

### 도의회, 지원 조례 가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생활보조비를 지급받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순천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지급 금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가 정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일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2024년 10월6일이다. 희생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신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추정 피해자가 1만1000여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지만,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건"이라며 "국가에 대한 불신,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항지 기자**

## 광주·전남·전북 '호남학 연구 통합' 실무협의체 구성

### 학계 등 외부인사 자문위원 선정

광주·전남·전북도가 호남학 연구 기관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체(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포함, 3개 시·도 관계 공무원들이 호남학 연구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학계 등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조만간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설립은 2007년부터 호남지역 학자들을 중심으로 민간 소장 자료를 수집·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14년 10월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채택됐다. 이후 설립추진단을 구성, 기본계획 수립·출연기관 승인·지원조례 제정 등 3년의 노력 끝에 2017년 법인 설립의 결실을 봤다.

설립에 앞서 광주·전남·전북도는 공동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설립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수도권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영남권의 한국국학진흥원과 견줄 만한 호남권 한국학 허브기관을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3대 추진축 가운데 하나인 전북도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결국 광주·전남도만 설립에 참여했다.

전북도는 당시 예산 분담과 입지 선정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참을 통보했으며, 결국 광주·전남도만 함께 했다. 지난 해 5년여 만에 재의가 이뤄진 배경은 3개 시·도 단체장들이 사적 자리에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전북도는 부안에 추진 중인 전라유학진흥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을 통합, 호남을 상징하는 대표 역사기구로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자료를 기증했던 광주·전남 일부 지역 인사들은 전북도의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상지 기자**



북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합동 생일잔치

광주 북구 관내 토끼띠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이 16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에서 문인 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 생일잔치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건호 기자**

## 광주시 '군공항 이전 지역' 인센티브 약속

### 함평, 4-5월께 이전 찬반 여론조사 유치위 '득실 따져 주민 설득할 것'

함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세번째로 열렸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는 마을 이장·반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개최됐다. 함평에서만 세번째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에는 이상익 함평군수가 처음으로 참석해 관심이 모아졌다.

이 군수는 인사말에서 "군민이 마다하면 저도 끌고 갈 수 없다"며 "유치한다면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반대한다면 어떤 사안이 안 된다고 명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진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은 "어느 지역으로 유치되더라도 전남도와 함께 지

원하겠다"며 "광주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군 공항 이전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지역에 450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전지에 마을 진입로를 정비하고 공영 주차장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노인 복지건강타운과 같은 복지 시설도 확충한다.

또 친환경 이주 축산 단지를 조성해 소득 증대를 이끈다. 지역 농수산물 유통단지 등을 조성해 지역 개발에도 보탬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소음 최소화'를 위해 광주 군 공항보다 넓은 부지에 공항을 만들고 이주 단지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평군은 오는 4-5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대

표 표본 찬성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질문 시간에 한 함평군 이장은 현실 단계에 못 미치는 토지 보상 감정이 책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군민에게 지원하는 4508억원과 보상비는 별개"라며 "군 공항 완충지에 태양광 단지 등을 조성해 군민에게 고정 수입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장병들이 광주로 출퇴근 할 경우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관사를 지원 받기 위해선 주소지가 (함평에)등록돼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군 공항 함평 유치 주민설명회는 17일에도 농업단체 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박상지 기자·뉴스**

## 민주 "이낙연 영구제명·박지현 탈당 청원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징계를 요구한 당원 청원글에 "우리편을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답변을 갈음하며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왔던 두 건의 청원에 대해, "이 대표가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본 청원에 대한 답변

으로 같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이 언급한 SNS 게시물엔 이 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을 강조하며 썼던 것이다. 이 대표는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며 색칠하고 망신 주고 공격하면 당장 기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민주당은 물론 민주 진영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며, "내부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전남도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 21~22일 서울서 페스티벌

전남도가 오는 21~22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내 관광객 1억명·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 홍보를 위해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초청인사, 출향 지역민, 서울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개막식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 축제, 고향사랑 기부제, 귀농·귀촌 정책 등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전남 관광사진전도 함께 연다.

21일에는 10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영국남자'와 함께하는 전남 방문의 해 홍보단 출정식 등 개막식과 에일리, AB6IX, 하이키 등 유명 가수의

케이팝(K-POP)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튿날인 22일엔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104회 전국체육대회 등 4대 대형 행사 홍보관을 운영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상파 프로그램 '6시 내고향' 현장 특별 생방송도 진행된다.

**최항지 기자**